



감동·전율... '브래드 리틀의 힘'

(주연 배우)

지킬 앤 하이드

전주 공연 리뷰

지킬은 인간의 본성인 선과 악을 상징하는 두 인물 '지킬'과 '하이드'를 한 몸이 품고 있다. 어느 순간 악의 인물 '하이드'가 내면을 모두 장악해버려 지킬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연인 엠마의 품에서...

'비극적인 결말'에 잠시 숨죽이며 감정의 여운을 추스리던 관객들은 무대 위에 다시 조명이 켜지자 환호성과 기립박수를 쏟아냈다.

26일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오리지널 팀 공연이 열린 전북대 삼성문화관. 드라마틱한 스토리와 아름다운 멜로디, 배우들의 뛰어난 가창력과 섬세한 연기가 어우러진 2시간 40분은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탄탄한 원작과 'Once upon a dream' 등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로 이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지킬 앤 하이드'가 '명품 뮤지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 무대였다.

이번 오리지널 팀의 장점은 전 출연진의 뛰어난 가창력이었다. 주인공들 뿐 아니라 앙상블까지 누구 하나 빠지지 않는 노래 실력을 선보였다.

'오페라의 유령'의 히로인 켈트

폭발적 가창력·섬세한 연기로 객석 장악

공연예술제 초청 10월 24·25일 광주 무대

역만 2천번 넘게 공연한 브래드 리틀은 특히 압권이었다. 극 초반부터 무대를 장악한 그는 흰찰한 키와 카리스마, 폭발적인 가창력과 연륜이 연기로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관객들을 휘둘러왔다. 특히 'This is the moment'와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The way back'을 부르는 장면은 전율을 느끼게 했고, 객석에선 환호성과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또 굵은 저음의 목소리로 선보이는 안정된 연기 역시 관객들을 집중시켰다. 브래드 리틀의 진면목을 보려면 앞서자 확보는 필수다.

소리로 선보이는 안정된 연기 역시 관객들을 집중시켰다. 브래드 리틀의 진면목을 보려면 앞서자 확보는 필수다.

루시 지역의 벨라다 웰스톤은 '숨겨진 진주'였다. 그녀에 매달려 첫 번째 노래를 부르는 순간부터 만만치 않은 내공을 선보인 벨라다가 부르는 루시 테마 'A new life'는 감동적

폭발적 가창력·섬세한 연기로 객석 장악

공연예술제 초청 10월 24·25일 광주 무대

자막이 제공되기는 하지만 '대사'가 다소 많은 작곡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토리를 알고 가는 게 관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커튼 폴 후 브래드 리틀의 감자 이벤트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나 놓치지 말 것. 광주국제공연예술제 공식 초청작인 '지킬 앤 하이드'는 10월 24~25일 광주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12만원~6만원. 30일까지 예매시 10% 할인. 문의 062-220-0541. 1588-0766. /전주=김미은기자 mekim@



박진현의 문화카타레

이젠 콘텐츠를 부탁해

뉴욕을 여행중인 관광객들은 수많은 볼거리에 즐거운 비명을 지른다. 그중에서도 미술관과 뮤지컬은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등에는 '죽기전에 꼭 봐야 할 명작'들이 가득하다. 하루 종일 미술관을 둘러봐도 전시작품의 절반도 못보고 나오기 일쑤다.

게다가 뉴욕의 밤엔 관광객들이 손뼉이 기다리는 시간이다. 여행으로 인한 피곤함과 잊은 채 밤이 어두워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브로드웨이로 향한다. 밤 8시부터 40여개의 극장에서 일제히 시작하는 뮤지컬 공연을 보기 위해서다. '오페라의 유령', '켄트', '미녀와 야수', '사카고' 등 이른바 '스탠다 뮤지컬'이 공연되는 극장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뉴욕의 밤엔 또 다른 관광의 시작이다.

일정에 조금 여유가 있는 관광객들은 뉴욕 인근의 가볼 만한 곳들을 찾기도 한다.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급부상한 곳이 있다. 맨하튼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 번두르 미술관, 디아비콘(Dia Beacon)이다. 그러나 미술관의 첫 인상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화려한 랜드마크를 자랑하는 맨하튼의 미술관들과는 사뭇 다르다. 인쇄공장을 리모델링해서인지 외관은 허름한 물류창고에 가깝다.

하지만 이 같은 실망은 미술관에 들어서는 순간 경이로움으로 바뀐다. 앤디 워홀, 리처드 세라, 뎀 플래빈, 솔 르윗 등 20세기 현대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거장들의 '본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맨하튼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매년 전 세계에서 50여만 명이 다녀간다. 인구 15만 명의 비컨을 신생 문화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기적의 미술관이다.

뉴욕이나 비컨에서 보듯 문화도시에는 특별한 매력 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랜드마크나 콘텐트 등 차별화된 볼거리 말이다. 그중에서도 콘텐트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흥행카드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를 놓고 근 1년 3개월간 중단됐던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별관 일부를 존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오랫동안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문화전당(전당)의 콘텐트 개발의 불이 된 것이다. 사실 '별관'에 매달린 지난 1년은 콘텐트를 구상하는 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다. 더욱이 광주는 랜드마크 논란으로 이미 급속한 시간을 흘러 보낸 과거가 있지 않은가.

이제는 전당이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할 때다. 현 문화전당 계획안에 따르면 민주평화 교류원, 아시아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어린이 지식문화원 등 주로 연구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연구와 교육만 있을 뿐 한류와 관광시설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관광객들이 전당과 광주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낮과 밤을 즐겨야 하는데 그럴 만한 볼거리가 부족하다. 문공부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3만5천여 평의 전당은 관광객 대신 직원들로 넘쳐나는 쓸쓸한 연구실이 될 게 뻔하다.

문화경쟁의 시대, 콘텐트도 없고 수익도 못 내는 문화시설은 퇴출 0순위다. 세상에 하나 뿐인 전당의 이런 개발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헌책방 영화제'

광주 용봉동 '아낌없이주는나무'

영화 상영하고 관람객들과 토론

헌책방의 파스한 기운을 느끼며 영화를 만나는 특별한 영화제가 열린다.

책 나눔과 자원순환을 통한 독서문화의 새로운 공간을 열어가고 있는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아낌없이주는나무'(광주시 북구 용봉동)는 9월부터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와 함께 '별책부록 영화제'를 열기로 했다.

영화제는 광주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한 영화를 중 한 편씩을 골라 아름다운가게 헌책방 '아낌없이주는나무'에서 상영하고 관람객들과 토론하는 형식으로 매달 개최 예정이다.

9월(30일 오후 7시 30분) 첫 상영작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와이키키브러더즈' 등을 만든 임승래 감독의 최근작 '날아라 펄린'.

관람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며 관람료는 4천원이다. 문의 062-514-8975.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퍼포먼스도 훌륭한 디자인"

탤런트 윤동환, 아티스트 김수영·박영 등 전시 작품들 사이사이 다양한 '행위 예술'

"퍼포먼스도 훌륭한 디자인입니다."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18일~11월4일)가 움직이는 전시로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에 첫 시도된 '움직이는 전시(Moving Exhibits)'는 전문 퍼포먼스 작가들이 참여해 전시장 곳곳에서 다양한 '움직이는'을 선보이고 있다.

27일에는 탤런트 윤동환씨가 참여, '나'를 주제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윤씨는 소셜네트워킹을 모티브로 하버드대 디자인대학원(Graduate School of Design) 학생들이 만든 휴식 공간 안에서 명상에 잠긴 모습을 관람객에게 선보였다.

윤씨는 디자인 작품 안에서 인간이 휴식을 취하고, 명상을 통해 편안한 심리 상태에 이르는 과정을 몸으로 보여

줬다. 이 밖에도 이번 전시에는 김수영, 박영, 윤가은, 박유정, 문준성, 권노해란, 김은미, 안정, 김광철씨 등이 다양한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비엔날레관 5개 전시실과, 통로 등지에서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행위예술을 선사하고 있다.

아티스트들은 이색 가면을 쓰고,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거나 독특한 분장을 한 채 전시 작품을 젓가락으로 집어 먹는 시늉을 하는 등 이색 재미를 주고 있다.

또 관람객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마스코트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27일 광주비엔날레전시관에서 탤런트 윤동환씨가 전시 작품 안에 들어가 명상에 잠기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움직이는 전시를 기획한 규방씨는 "관람객들에게 이번 디자인비엔날레의 주제가 어떻게 인간의 삶과 연관돼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이다"면서 "인간이 작품과 하나 돼 또 다른 작품을 완성하는 새로운 전시형태"라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대)223-1140, 5210 헬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이었던 골라 들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F:383-5221 H:011-609-5221
(이바들잡자탕 1층)

- 빌딩(입대용, 투자용)
 - 토지 590평/건물 4,500평(매가 210억)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 590평/건물 750평(매가 98억)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용자 12억
 - 토지 200평/건물 725평(매가 33억) 보증금 9억/월세 1,500만원
- 토 재상무지구 상인지역 (회사사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 등)
 - 1,000평(임무용지)-매가 평당 750만원
 - 250평(유용가능)-매가 평당 1,200만원
 - 500평(임무용지)-매가 평당 1,200만원
 - 136평(유용가능)-매가 평당 950만원
- 기타토지
 - (농지) 동산동 약 2만2천평 평당 10만원
 - (농지) 삼가동 약 3,000평 평당 300만원
 - 교외주원(마트예정장 등 계획)
- 호텔, 모텔
 - 호텔, 모텔에 투자 하실 분 상담현영 투자수익 10%이상 보장
- 상가 매매 (상무지구, 상무역세권)
 - 상가 150평(9층) 매가 평당 450만원 개별등기 있음.
 - 학원, 독서실, 사무실 등 접합
 - 세정아울렛 주변 역세권상가가 있음
 - 대형 의무제강 가능 상가전화 상담현영
- 부동산 교환상담 현영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 드리겠습니다.
어무 때나 전화 주십시오.

금호부동산컨설턴트
급매부동산전문

- 아파트(급매 매물)
 - 광주 문흥동 아파트 32평(총15/12층, 가격 1억1천만) 매 8천5백만원
 - 광주 신창동 아파트 35평(총22/20층, 가격 1억5천만) 매 1억2천만원
 - 광주 연제동 아파트 62평(총18/4층, 가격 1억5천만) 매 1억2천만원
- 주 택(급매 매물)
 - 광주 원산동 주택2층(대 29/건 29평, 공시 4천6백만) 매 3천만원
 - 광주 산수동 주택1층(대 27/건 18평, 공시 3천5백만) 매 2천8백만원
 - 광주 원산동 주택2층(대 34/건 26평, 공시 4천1백만) 매 2천9백만원
- 상 가(급매 매물)
 - 광주 충장로5가 빌딩7층(대 124/건 305평, 가격 9억) 매 7억5천만원
 - 광주 오치동 투룸117(대 114/건 198평, 가격 8억) 매 6억8천만원
 - 광주 신인동 무인텔28(대 107, 건 399평, 가격 11억) 매 6억9천만원
- 대 지(급매 매물)
 - 광주 병림동 나대지(대 93평, 공시 3억 1천만) 매 2억7천만원
 - 담양 금성면 전원지(주 1378평, 공시 1억6천만) 매 1억3천만원
 - 광주 주월동 임아제2중 주거지 500/도로계획 및 보존 500평) 매 4억원
- 기 타(부동산 대출 및 임대 60~120% 매물)
 - 광주 주월동 상가2층(대 297/건 425평, 공시 9억2천만) 매 6억원
 - 광주 중랑동 상가4층(대 364/건 895평, 공시 2억3천8천만) 매 17억원
 - 광주 동명동 나대지(상 690평, 공시 39억8천만) 매 20억원
 - 순창 순창읍 주차장(상 421평, 공시 5억3천6백만) 매 2억5천만원
 - 장흥 유치면 임아(20만평) 펜션, 현숙, 농장, 전원주택 임대 및 분양
- 부동산 업자 사절

전화 224-5959 / 010-2831-1733
(광주 충장로 화니 백화점 후문)

국민공인중개사
☎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매물 중개 전문)

- ▶ 공시지가+건물표15억/매매가11억
- ▶ 대지300평/건물450p/보증금1억5천20m도로접
- ▶ 분양가8억/아파트1300세대/상가매매가2억5천
- ▶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 ▶ 공시지가+건물표6억/매매가3억5천
- ▶ 현재현의원경영대130p/건230p상업지역
- ▶ 공시지가+건물표7억/매매가4억2천
- ▶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 ▶ 상업지역면적95p
- ▶ 공시지가3억5천/매매가2억4천30m 도로 접
- ▶ 남해바닷가 700,000p 임야 140억, 골프장 태양광
- ▶ 32억빌딩급매
- ▶ 대 200p 건 450p
- ▶ 보 8억원 월2350만원 용 13억포함
- ▶ 화순도곡12000p
- ▶ 관리지역12억
- ▶ 곡성, 보성 강변 임차, 별장, 펜션, 가든 쾌적함용
- ▶ 대지420p 건3층 80p 매매가 1억2천
- ▶ 화순주유소급매
- ▶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 ▶ 매 12억 용자 6억포함
- ▶ 화순, 권덕, 요양원, 별장부지
- ▶ 9500p 현재 황도암 창고관리실
- ▶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5천
- ▶ 59억 빌딩 대 1000m 건 5500m 보증금 20억
- ▶ 월세 4천 용자 15억 포함
- ▶ 장성 임야사슴목장, 별장 100,000p 4억7천
- ▶ 장성 표지적합잔디밭 600p 7000만원
- ▶ 원통매매
- ▶ 계림동출플러스대115p, 건200p보증금1억,월세425만원
- ▶ 공시지가+건물표 15억
- ▶ 대 300p 건 350p 매매 11억

경매전문회사
호남경매컨설팅

무료 상담 ☎ 062)228-6600
H.P 010-5616-8988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5-1 (2층)
(법원·검찰청 정문앞, 광주은행 맞은편 2층)

"23년 역사의 경매전문회사"

- ▶유치권, 법정지상권등 정확한 권리분석
- ▶통계자료와 시세분석에 의한 최적인 낙찰가 제시
- ▶제1,2금융권을 통한 최저금리로 부족한 경락
- ▶잔금 대출앞선(낙찰가의 50%~80%)
- ▶소유주, 임차인들의 신속한 명도(이사)

☎~지금 전화 주십시오!
전국 3만여건의 경매물건 중에서 원하시는 경매물건을 찾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